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한 이기대 해파랑길 트레킹

“같이 갑시다!” 구슬땀 속에 핀 남구 사랑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굵은 땀방울이 리퍼트 대사의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다. 상의는 흥건히 젖었고 숨도 거칠었다. 그래도 서툰 우리말을 해가며 ‘망가진’ 자신보다 동행한 어린 대학생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땀에 뻘 배려심과 미국인 특유의 개방성은 두 시간에 걸친 이기대 트레킹 내내 빛을 발했다.

지난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우리 남구를 방문했다.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 리셉션을 위해 전날 부산을 찾았는데 이날은 부산 방문 마지막 행사 일환으로 이기대 해파랑길을 걸었다. 곳은 날씨 속 6km 코스였다. 트레킹에는 부산 미영사관 직원과 부산여자대학교 학생 20여 명이 동행했다.

연무가 짙게 깔린 오전 9시 45분, 성조기를 단 검은색 대사와 차량이 오륙도스카이라인 입구에 도착했다. 차 문이 열리자 연갈색 티셔츠에 반바지, 운동화 차림의 리퍼트 대사가 내렸다. 세계 최강국 미국의 특별전권대사라기 보다는 동네 산보 나온 이웃집 아저씨 느낌이다. 웃을 때 표정은 로버트 할리를 닮았다. 지난해 피습으로 입은 오른쪽 뺨의 상처가 흉터로 남아 있었다. 짙은 안개로 오륙도 여섯 섬은 물론이고 스카이라인의 발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안해하는 관계자들을 향해 리퍼트 대사는 “무서웠어요”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의 유머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훈빛 구름이 해안 풍광이 모두 지워졌다. 전날 내린 장대비로 코스 일부는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다. 게다가 ‘훈남 대사님’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여학생 대부분은 새 운동화를 신고 왔다. 이러저러 트레킹하기엔 ‘최악’이었다.

이런 ‘난감한 매듭’을 리퍼트 대사가 풀었다.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등 우리말로 대학생 한 명 한 명을 살뜰히 챙겼다. 함께 ‘브이’자를 그려가며 사진도 찍고 웃고 떠드는 스스럼 없는 행동에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부산여자대학교 학생들과 이기대트레킹 도중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침 내내 흐리다가 정오 무렵 해무가 걷히고 햇살이 나오면서 이기대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었다.

부산 지역 대학생들과 2시간 걸쳐 이기대 완주

곳은 날씨 불구 유머·배려심 시종일관 화기애애

다행히 일행이 농바위 전망대에 다다르자 안개가 걷히면서 저 멀리 오륙도의 비경이 드러났다. 이 무렵 취재진이 리퍼트 대사에게 ‘임진왜란 당시 두 기생이 왜장을 안고 투신한 데서 이기대 지명이 유래되었다’고 알려주자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친 김에 ‘이기대 바닷가에는 해녀들이 많다’고 하자 “오, 해녀!”라며 맞장구를 쳤다. 네이비실에서 군 생활을 한 그는 지난 5월 제주도로 건너가 직접 해녀 체험을 하고 해녀 자격증을 땀다.

지난 2014년 10월 한국에 부임한 리퍼트 대사는 올해 마흔 넷이다. 역대 최연소 미국 대사답게 한국인들과의 스킨십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날 트레킹도 같은 맥락으로 마련됐다.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은 그의 서툰 한국말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학생들의 영어 질문에는 가급적 우리말로 답했다. 모르는 한국말이 있으면 일일이 물었고 통역관과도 일상적 대화는 한국말로 하려고 노력했다. 오르막길에서 힘이 겨워 ‘악’

소리를 지르는 여학생을 향해 리퍼트 대사는 “괜찮아요?”라며 재치 있게 말해 주위를 웃겼다.

이기대 어울마당 근처에 닿자 거짓말처럼 하늘이 갼다. 비로소 광안대교와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이 시야에 들어왔다. 기암절벽과 연푸른 파도 사이로 용호만 다리아몬드베이에서 출항한 크루즈 요트가 그림처럼 스쳐갔다. 늦게나마 이기대 트레킹의 진면목을 만끽할 수 있어 다행이었다.

땀 범벅이 된 리퍼트 대사에게 트레킹 소감을 묻자 “매우 좋았고 재미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오륙도스카이라인에서 동생말까지 6km를 완주한 그는 학생들과 함께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다음 일정을 위해 경남 창원으로 이동했다.

남구 위해 고생 많았습니다

■ 2016년 상반기 남구청 퇴임공무원



이 재 학
(전 부구청장)



최 영 자
(전 주민생활국장)



박 명 옥
(전 대면6동장)



윤 철 호
(전 용호3동장)



이 원 표
(전 남구의회 전문위원)



최 성 길
(전 대면6동 행정민원팀장)



박 희 대
(주무관)



이 상 호
(주무관)

한국남부발전이 선물하는

사랑의 삼계탕

남구 내 복지관 4곳에 삼계탕 비용 1200만원 전달

용호복지관 7월27일·8월16일 행사

한국남부발전(대표이사 윤종근)이 복남을 맞아 남구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삼계탕’을 준비했다.

남부발전은 남구 관내 복지관 4곳(감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용호복지관)에 삼계탕 행사에 필요한 경비 1,200만원을 후원했다. 복지관들은 이 후원금으로 홀로어르신 등 지역주민 1,500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할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후원금 외

에도 임직원이 직접 복지관을 찾아 배식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600만원을 후원받아 27일(중복) 관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 550여명을 초청해 보양식 삼계탕을 대접하는 ‘사랑의 삼계탕 데이’ 행사를 연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말복인 8월 16일(수)에도 지역 내 어르신 800여 명을 초청해 사랑의 삼계탕 한그릇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경대에 실내 수영장 만든다

실내체육관 2019년 완공… 학생·지역주민에 개방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 수영장을 갖춘 대규모 실내체육관이 건립된다.

부경대는 대연캠퍼스 체육관 옆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6,000㎡) 규모의 스포츠복합센터(사진)를 조성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국비 169억 여 원이 들어가는 이 체육관에는 6개 레인(길이 25m)의 수영장과 수심 3.5m의 수상안전교육장, 피트니스 센터, 에어로빅장, 실내골프연습장, 동아리실, 강의실, 카페테리아, 휴게라운지가 들어선다.

대학 측은 남구 주민들에게도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체육관은



내년 3월 착공, 2019년 12월 완공 목표다. 이와함께 부경대가 지난해 12월부터 국비 30억원을 들여 공사 중인 인조잔디 축구장이 8월 말 완공 예정이다.



문현동 굴다리 벽화 조성

문현2동과 문현4동을 연결하는 굴다리가 화사한 새 옷을 입었다. 지난 15일 한국대학문화연합회(회장 구자영)는 문현동 굴다리 외벽 벽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완공식을 가졌다. 굴다리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제능기부 형태로 부경대학교 미술 관련 학생 30명과 이마트 부녀봉사단 자원봉사자 20명이 참여하고 이마트 문현점이 후원해 지난 6월부터 20여일 작업을 진행했다. 기존 굴다리의 삭막한 벽면은 덕분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그려져 정감 있는 거리로 바뀌었다.

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은 “예쁜 벽화로 단정한 길을 오가는 주민들이 잠시라도 밝은 기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벽화 봉사활동이 필요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DL 댄스스쿨 3주년 기념(50% 할인)

8월 단체강좌 안내(8월 3일 개강) 왕초보반 (대면 봉사반)

화·목

13 : 00~13 : 50 웰빙댄스(지루박, 부르스, 트로트) 5만원

18 : 30~19 : 20 자이브, 룸바 5만원

토

14 : 00~15 : 30 아르헨틴 탱고 10만원 (4주/1회 2타임)

동호회 파티 대관 합니다 / 개인수업 정성껏 지도 합니다

☎ 051-624-9399 / 010-4667-4828

부산 남구 대연동 1746-6, 대연 전철역 5번 출구

반석 요양 보호사 교육원

7월 말 주·야간반 개강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

남구! 중일반/야간반/주말반/신모, 신생아 관리사 수시 모집

반석바우처센터운영/대상 : 노인장기요양4등급 A, B/신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요양보호사 취업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반석방문요양센터 / 반석복지요구 (요양보호사 취업전담 센터운영)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복지요구/바우처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 요양상담 ▶ 복지요구 임대 및 매매상담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상 남구 용호동 농협 하나로마트 용호점 100M전

담 ☎ 621-1488~9 / 010-2856-5482

동진스포렉스

1,500평규모의 호텔식 스파, 고급스러운 스크린골프, 전망좋은 위트니스, GX

오전 6시이전 입장 = ₩5,000

지하 700M 황령산 석청수

부산/경남에서 유일한 밀키버블탕

바테풀/폭포안마탕

ALL ROOM 골프존 비전플러스

좌타/스윙플레이트완비

카페테라스무료운영

독일제 GYM800헬스기기

요가/필라테스/줄바

맞춤형 그룹PT/요가

대연동 남부경찰서 뒤

문의전화) 623-9696

월요일 휴무

남부경찰서 대역사 동진스포렉스 문화센터

살인극터라니 대우그린1차

통기타.우쿨렐레 회원모집 수시접수 개별지도 (각 반 6명 선착순 마감)

통기타	오전반	수요일 오전 11시~12시30분
	저녁반	금요일 저녁 7시~8시30분
우쿨렐레	오전반	목요일 오전 11시~12시30분
	저녁반	수요일 저녁 7시~8시30분
하모니카	오후반	목요일 오후 2시~3시30분
	저녁반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클래식 기타	저녁반	일요일 저녁 7시~8시30분

어느 번을 수강하셔도 되고 악기는 학원악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051)611-6684

간호조무사 우수훈련기관

실업자국비 개강 : 3월/9월

근로자국비 개강 : 3월/9월

일반생 주간/야간 (월25만원)

특전 교재, 특강 문제집, 실습복 일체 무료 제공

병원 코디네이터 교육 지원

혜성간호학원

대면역 1번 출구 ☎ 622-1116, 2055